

# 인연을 짓다 (중)

황해성(군산시 지곡동)



그림 · 문병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주머니가 실려간 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있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는 도중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혹시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별 일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두 아주머니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보이지 않았다. 응급실에 계신 아주머니는, 자기는 발목에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는데 다른 아주머니는 의식이 없어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했다.

순간 겁이 탈려 났다. 큰 병원으로 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이송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엔 모범 운전자 복장을 한 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사고 낸 사람이야?" 하고 소리를 쳤다.

"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사람 다 죽게 생겼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마치 큰 죄를 짓고 끌려온 죄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나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니 내 책임이었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머리에 피가 고여 뇌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잠시 후 아주머니의 남편이 나를 밖으로 불렀다. 의사는 장담을 할 수 없으며, 일단 수술이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일단 돌아가라"고 했다. 그 남편이라는 분의 태도는 오히려 나보다도 더 친척했다. 내 먹살을 쥐고 흔들어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다. 내가 교통사

고를 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내가 낸 사고로 인해 사람 목숨이 위태롭게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은 잘 됐으니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간절히, 정말 간절히 수술이 잘 되길 기도했다. 아주머니도 아주머니지만 아주머니가 잘못되기도 하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주머니 가족들의 따거운 눈총을 뒤로 하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내일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

면 자꾸만 사고 순간이 떠올라 눈을 감기가 겁이 났다. 아래는 다 잊어버리고 그만 자려고 했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았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집에서 조금만 더 일찍 나섰다면? 아니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러곤 이내 '그런데 그 아줌마들은 비도 오는데 왜 길한 가운데를 무단횡단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 하는 원망까지 생겨났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주머니들의 경솔함이 원망스러웠고 분한 감정까지 생겨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흥분된 마음으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물

었다. 내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한참을 눈을 흘리며 스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스치듯 한 생각이 지나갔다. '그래! 기도하자. 마음의 주인공에게 맡기고 지켜보자. 지극히 믿고 맡겨보자.'

대행 스님의 가르침대로 하자고 결심한 순간 머리 속이 환해짐을 느꼈다. 몇 번을 되풀이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주인공!"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주인공에게 맡긴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자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짐이 느껴졌다. 방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지옥과도 같았던 마음이 생각 하나를 달리하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신기했다.

스님의 책을 머리맡에 두고 조용히 침대에 누우니 이내 스스로 눈이 감기며 잠이 밀려왔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난 어느 절에 와 있었다. 처마의 단청이 너무 아름다워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단청 위로 인자한 모습의 대행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난 "스님" 하며 합장을 했다.

## 사고 후 죄책감 · 불안한 마음으로 불면증 '주인공에 맡겨보자' 생각하니 편안해져 '아주머니 위해 정성껏 기도하리라' 다짐

오는 차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정말 말로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런 나를 보며 선배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니가 자책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죄인처럼 그러지 마. 보험 들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힘내 임마!"

하지만 그런 위로의 말도 내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였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TV에서나 보았던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그동안 누구에게 약하게 한 적도 없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

를 마시러 책상으로 갔다. 그 때 책상 위에 놓여진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삶은 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대행 스님이 미소 띤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순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따스함이 느껴졌다. 매달리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스님!" 하고 외쳤다.

스님에 매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 전 까지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비롯한 나 자신의 터무니없는 오만함이 떠

했음이 눈부셨다. 열마를 짚지 벌써 해가 중천이었다. 꿈속에서 스님을 만나서인지 훨씬 마음이 가벼웠다.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을 말렸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고 싶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아주머니가 쾌차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4행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정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히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애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